

新訂
尋常小學
二

朝

25

2





新訂尋常小學卷二目錄

第一課 兵士라

第二課 運動이라

第三課 智成의智慧라

第四課 張維의이이기라

第五課 누에라

第六課 여호라

第七課 木理라



朝鮮總督府採擇本

尋常小學卷二目錄

第八課

기름이라

第九課

禮와信과仁이라

第十課

동모를갈히는法이

라

第十一課

소금이라

第十二課

小野道風의이의

第十三課

기라

第十四課

익킬짚이란字라

第十四課

숫이라

第十五課

杜鵑이라

第十六課

雪이라

第十七課

訓練이라

第十八課

司馬溫公어린서

第十九課

여호와피의이리

第二十課

이라

第二十課 달팽이라

第二十一課 回水라

第二十二課 時計를보는法

第二十三課 이라一

第二十四課 時計를보는法

第二十五課 이라二

第二十六課 職業에는貴賤

第二十七課 이업는것시라

第二十五課

가마귀가 조개

를 먹는다 이 이 기

라

第二十六課

無識할스름이

라

第二十七課

無識할스름이

라

第二十八課

老人이라

第三十二課

船이라

第三十三課

武器라

第三十四課

軍士라

第三十五課

軍器라

第三十六課

軍法라

第三十七課

軍令라

第三十八課

軍紀라

第三十九課

軍規라

新尋常小學卷二



第一課

兵士라



에 兵士가치 勇氣잇는 거슨 업느니 萬

一 敵兵이치라오느디는 大砲며 小銃을 뜻

는 烟氣中이라도 무릅쓰고 다니며 남의게

지이지아니케 衝突하야 國家와

大君主陛下를爲하야 毒기를 避치아니코칼

날이 霜雪갓트야도 조곰도 怯너지아니하



고 無人之境 갓치 드리
 가니 勇猛하다 우리는
 恆常이 兵士를 恭敬히
 거시오이다
 우리가 至수는 兒孩라
 後日에 는 다 兵士가
 되야 勇猛하게 我國을
 직 할 터이 오이다

第二課 運動이라

사람이 六七歲가 되면 不可不 冊을 읽으며
글시를 쓰며 또 數法을 비을 일이 오이다.

이런 일은 官員이나 百姓이나 商估나 다 緊
要할 거시오.

學校에서도 이런 일을 먼저 가르치나. 그리
나 몸이 健康치 못하면 마음되로 工夫를 못

할 거시니, 스름은 몸을操心하야 飲食이라
도. 숨가하고 또 恆常게 어르지 아니케, 運動
하고 몸을強하게 함이 緊한일이 을사다

第三課 智成의 智慧라

數多하兒孩들이, 羣集하야 제기를가지고
더지며, 노다가, 잘못하야, 나무썰이구멍으
로, 쓰러져, 드러간지라, 힘을다하야, 집어너

라. 허나 구멍이 깊

히. 허수업더니 그

중에. 智成이란兒

孩가. 물을. 桶을. 길

어. 다가. 노. 고.

나. 는. 卽. 슈. 구. 井. 에. 들어. 가. 서. 제. 기. 를. 가. 지

고. 나. 을. 벗. 을. 請. 하. 야. 왓. 다. 하. 고. 말. 하. 며. 곳. 그

물. 을. 구. 井. 속. 으. 로. 부. 었. 더. 니. 그. 제. 기. 가. 물. 에



서나왔소이다.

第四課

張維의이이기라

네부터有名學者와高明賢人이.만히

잇습니다.이스름들은世上의生함으로부

터知識이잇는거지아니라.多年刻苦

야비로소學者一되며賢人이되얏는이다.

넋적我國에張維一라하는스름이잇스네.

書傳을萬讀고자 하나家貧하야 할길업는
지라이에。全羅道俗離山에。드러가。山僧의
게。讀書할處所를請하되。山僧이。것하하。房
을가르쳐。갈오되。저房에。할書生이。몬。저와
잇스니。公子는。함게。處함이。엇다。하노。張維
一。大喜하야。晝夜工夫。할식。歲月가。느。줄을。
모르더니。一日은。그同居하든。書生이。歸家
하거늘。그제야。비로소。人事하코。作別하니。



그릇을 房에 잇스니 七年만에 이 제야 그 書
生의 姓名을 알어 더라

張維 | 이 갓치 十年을 工夫 할 디 天下事理
에 모를 것지 업논지라

宣 廟朝에서 드르시고 그 마음의 堅確함을 稱

賞하시 고 버슬을 除授하시 後에 慶尙監司
에 일으 디 前後功績이 至今까지 有名호
이다

第五課

누에라

누에논. 생. 남을. 먹. 는. 버

러. 지. 라.

처. 음. 은. 조. 고. 만. 毛. 蟲. 의

식. 가. 처. 럼. 보. 이. 다. 가. 생.

남. 먹. 기. 를. 四. 五. 十. 日. 間. 이. 되. 면.

그. 몸. 이. 크. 고. 빛. 치. 하. 며. 明. 潤. 할.



然後에 입에서 실을 뱉어야 제 몸을 감아서
집을 숨고 그 속에 잇스니 그 집을 못치라 일
으느니 이 못치를 살마서 실을 뽑느이다.

第六課 여호라

여호는 그 形狀이 리와 비스름하고 또 狡할
才操가 잇는 짐승이올시다.

그러므로 간교할 才操 잇는 스름을 여호가

다. 흠. 읊. 니. 다. 여. 호. 의. 귀
와. 코. 눈. 섯. 족. 할. 고. 눈. 은.
밤. 으. 며. 쏘. 리. 는. 길. 고. 솟
할. 며. 석. 에. 구. 명. 을. 파. 고.
그. 속. 에. 서. 스. 노. 니. 낮. 에
는. 숨. 어. 다. 니. 고. 밤. 에. 는

먹. 을. 거. 슬. 츠. 지. 라. 나. 읊. 니. 다. 여. 호. 는. 닭. 이. 며
키. 구. 리. 며. 쥐. 를. 잘. 먹. 으. 며. 또. 집. 오. 리. 며. 木實



을 먹습너다

第七課

木理라

나무.즐.기.며.가.지.가.漸.漸.
크.게.되.는.거.스.그.별.이.가.
土.中.에.서.길.을.만.하.津.液.
을.잡.을.너.기.에.잇.는.緣.故.
라.



大概 나무는 每年 한 번 질식 죽는다. 그러나 그런
故로 몇히 목은 줄을 알고 죽으면 줄기를 뿔
여 너서 그 빈 자리를 보면 둥글게 도라간 나
무결數자로 좃차 아나니. 또 그 中心에 잇는
조고마할 결은 初年에 생긴 거시와 다.

第八課

기름이라

기름은 그 種類가 甚多하니 이 루 말할 기어

러오나 恆用하는 거슬 일은 則 蠟燭과 蠟燭과
들썩와면 화비 들을 연 것과 靑魚와 고리와
며르치 들 魚類를 紗서 빌든 것과 또 石油가
잇습네다.

蠟燭 기름과 蠟燭 기름은 恆用 食物에 쓰며 또
불도 켜고면 화비 기름과 魚油는 불 켜기에
만 쓰노이다.
들썩기름은 쓰려서 도우를 인드러 雨傘이

油衫이나 린드는데 쓰고 石油는 專혀 石油燈에만 쓰옵니다.

石油는 石油잇는 석유김히 파서 길어 너여 그 기름을 린든 거시 을 사다

第九課

禮와 信과 仁이라

무릇 스름을 對하야 恭敬하야 사랑하야
음을 보는 거슬 禮라 하야 正直하야 조음도

남을 속이지 아니함을 믿이라 할며 또 너 힘을
을 헤아려 남을 救濟함을 仁이라 일의 읍너
다. 스름이 되야서 此三德을 具備하야 할가
지도 缺함이 업스면 비로소 스름이라 할만
하옵네다.

스름이 世上에 나와서 萬若 善良할 스름의
로 못되얏스면 그 世上에 나온 보름이 어찌
잇슬잇가

그러므로 여러분의工夫를 할심도畢竟善
良할스름이되야。나라를爲하며。또自己를
爲하야。盡力하라함이아니온잇가。

第十課

동모를갈히는法이

동모란거슨。又學校에다너고。又工夫
를할며。또。又치노는者를일으난이다。

그親切할야. 남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조흔동모요. 우리몸에.
 益友 | 될거시니故로.
 우리는. 힘써서. 그런조
 혼동모로. 더부러. 사귀
 는. 거시. 을. 소. 이. 다.
 또. 남을. 속. 이. 며. 남을. 害
 록. 게. 하는. 사람은. 악. 할



동모—나우리는 決斷코 그런 악할동모를
사귀지 아니할일이오이다.

恆常 악할동모를 相從 할면 自家도 惡 할 行
習에 물드러 드려 惡人 이 될 거시오

俗談에 같으되 朱紅과 相從 할면 불근 빗치
된다 할는 말도 잇스나 이거슨 불근 것과 흰
거슬 할테 둔則 흰 것도亦是 불근 빗치 되
는 것갓치 惡友로 더부러 相從 할則 自然히 惡

쨍에 물드란 단譬喩을 시다

第十一課 소곰이라

여러분은 다 소곰맛시. 썩줄은 아시나. 그러
나. 그거슬 무엇스로 엇더케 빙그는지 모르
시는가 보나. 그이의기를 大概 하오리이다.
소곰은 바다물노 빙그는 거신디. 그 빙그는
法은 潮水를 기러서 海邊白沙場에 널니. 여

러 번 쬐러 曝陽에 달
니 면 소 염 이 모 리 에
벗 는 너 이 沙場을 鹽
田 이 라 稱 하 는 이 다
그 런 후 에 그 모 리 를
글 어 모 와 광 주 리 에
담 고 물 을 부 어 그 소
염 는 은 물 을 큰 솥 에



담아 물이 마르도록. 쓰리면 드디며 희고 精
할 소름이 되느이다.

또 소름은 山에서 도파녀. 밍기는 法도 잇
습된다. 山에서 도파녀 밍기는 法도 잇 습된다.

第十課 小野道風の 의미

小野道風이라

小野道風이라 할는 스름은 日本國에서 일

흥난. 筆家. 一. 라. 이. 커. 슨. 道風. 이. 雨. 中. 에. 서. 서.
리. 구. 리. 를. 보. 는. 그. 립. 이. 오. 이. 다.

이. 리. 구. 리. 는. 버. 들. 나. 무. 가. 지. 에. 붓. 고. 주. 흘. 다.

가. 여. 러. 번. 써. 러. 지. 되

더. 옥. 힘. 배. 붓. 치. 지. 아

나. 흘. 더. 나. 맛. 춤. 너. 그

가. 지. 에. 붓. 터. 습. 너. 다.

道風. 이. 구. 거. 슬. 보. 고.



感動하라. 아모일이라. 도忍耐하라. 힘을 쓰는
則. 못될거시업다하고. 其後는. 雪朝에도일
즉이. 일어나며. 雨夜에도. 去도록. 勉勵하라.
글시를. 必와드되. 有名할. 筆家. 一되야. 至
수. 事지. 事를. 들이. 大端히. 稱讚하옵시다.
和보음사
第 十 三 課 一 익. 習. 習. 字. 란. 字. 라
우리. 들이. 一의. 一. 習. 習. 이. 란. 글. 字. 를. 必. 習. 習. 字. 란. 字. 라

나와 그러나 엇지 할야 이글조가 깃우와와
한백으로 습할야 되얏는 잇가 서로 生覺
하야 보옵시다

그 뜻은 식가 어릴셔는 大概 그 깃이 희고
조 잘 날지 못하나 자조 날기 熟工 하면 自然
히 잘 날게 될터이니 그런故로 그 글 빛
근 거신가 보외다
우리들 도 식에 比할 則 아직 깃이 희셔라 아

모 일 이 라 도 남 처 럼 못 할 나 나 故 로 스 름 이

비 흘 만 할 算 術 과 讀 書 와 習 字 를 專 心 으 로

고 夫 할 면 得 力 할 야 道 通 치 못 할 일 이 업 습

너 다 習 은 도 道 를 습 습 스

第十四課의 숫이라

여 과 가 늘 고 가 인 나 무 를 큰 부 의 속 에 뵈 는
老 人 이 잇 스 니 그 것 해 할 兒 孩 가 나 무 를 음

기여. 老人을 助力할 읍니다.

이거슨 그 祖父가 孫子와

못치 솃을 굽는 데오 그 뒤

에 나무가 지로 이은 조고

마 할 집은 그 솃을 굽는 스

리에 녀의 들이 잇는 處所

을 시 다.

여 리는 靜寂할 산 속이 어 널 우 리 가 잇 다 몸



산스이에서 올라오는 烟氣를 불셔잇스니
그거슨이런데서 올라오는 거시올지다
숯을굽기논 부엌속에 빠흔나무에 불을질
너조곰탄후에 그부엌아귀를 막아 불을셔
지게 할야 그 불이 잘셔진然後에 숯시되노
니 그후에 천천히 열어 너서 섬에 너어 산하
리로 옴기 고 파노 이다

第十五課

杜鵑

杜鵑 식는 비둘기보다 적고 원몸이 灰色이
 로 뒤. 비에. 뒤와 갖치. 斑斑. 할. 點이잇습니다.
 다리에는 네 발가락이잇서 前後에. 들. 式이
 스니. 발가락에는. 날. 닢. 발. 틈이잇는故로. 남
 게. 잘. 을. 으. 나. 리. 며. 山林에. 스. 는. 식. 을. 시. 다.
 杜鵑 식는. 스스로. 집을. 짓. 지. 못. 할. 는. 故로. 달
 은. 조. 고. 마. 할. 식. 의. 집. 속. 에. 그. 알. 을. 나. 할. 두. 고.

그 식로 할야 몸 안 기 게 할 는 이 다.



杜鵑의 샷 기 는 性品
이 惡 할야 집 속 에
못 치 안 잔 달 은 샷 기 를
쫓 처 니 고 혼 조 잇 서
어 미 식 와 아 비 식 가
가 조 오 는 밥 을 먹 는
다 할 옵 니 다.

그러하나 杜鵑식은 植物을 害롭게 하는 비
 러지를 잡아먹는 고로 植物에 益有 益하
 며 또 여름에는 空中으로 나라 단이 뛰우니
 그 소리가 悽愴할 지라 이리므로 이식을 노리
 에 말하고 風月에도 말하야 大端히 稱賞하
 옴이다

第十六課

雪이라

雪은 冬의 氣에 凝한 水의 結晶
 이니 色은 白하고 質은 軟하고
 性은 寒하며 味는 淡하고 氣
 는 清하다

저·넷·썩·부·터·北·風·이·몹·시·
 불·고·거·문·구·름·이·太·空·을·
 덮·흐·며·별·은·하·도·보·이·
 지·아·나·하·더·니·不·過·暫·時·
 에·눈·이·霏·霏·히·오·입·너·다·
 兒·孩·들·은·조·와·하·야·窓·압·
 히·안·저·서·求·景·하·더·니·눈·
 이·더·욱·甚·히·오·입·너·다·



노이다

이軍士들은다強하고
將帥의號令으로行陣
하며이아리큰軍歌를
큰소리로불으이다

朝鮮國民되노者는

我君我國爲호지라



엇지 할야 그릇케 희고 이름다운논이 그거
믄 구름속에서 나왔습는 잇가

卷之八 第十七課 訓練이라

여리兒孩가 여섯시잇스니 큰兒孩는軍刀
를치고將帥가되고 세兒孩는막뒤를매우
고軍士가되야整齊히羅列할야섯스니 들
저兒孩는喇叭을불며섯저兒孩는북을치

잇튼 날 아침에 보니 나무 나무에는 흰 싹치
핀 듯하고 석에는白玉을 산 듯 할야 할로 밤
스이에世上이銀世界가 되얏더니 이윽고
太陽이 그景致를 보라 할는지 東邊에서 낮
흘 들고 올나오니 이景致도 할 奇異하다 太
陽이 雪上에 빛취는 貌樣이 못치 無數 할 별
이 輝煌 燦爛 할과 갓 타야 호자 보기 앓갑소
이다

膽氣勇略奮發。하야
敵兵萬若。잇슬씩
木숨슬기。不顧。늘고
一段忠義。힘버보세
飛雨갓튼。彈丸中에
鬼神갓치。다니면서
鐵노린든。城門을난
一聲砲響에。서치고

구름갓치되인敵兵
바름모듯훗터보세

第十八課 司馬溫公어린씨

이이기라

넷적支那宋時에。司馬溫公이란 사람이 잇
스니五六歲時에。兒孩들과갓치노다가동
모中。忽兒孩가意外에。물독속에빠지논지

라. 急히 救코 자하나. 그 獨이 汲고 물이 만하
엇지 呼수 업스미. 各各 慌惶 罔措 하. 더니 呼
누 司馬 溫 公이 돌을 드리. 獨을 쳐 치 이 兒 孩
를 救하 얏소 이 다.

진 살 노 스 름 의 智 慧 는 측 낭 치 못 할 일 이 오
아 다.

第十九課

여 호 와 피 의 이 의

十卷第十次題 記

할 피 가 山中에서

여 호 물 맛 나 問安

할 터

여 호 는 答禮 도 아

나 할 고 다 만 귀 를 옷 독

이 새 우 고 쇠 리 를 흔 들

며 과 더 러 무 러 티 너 는



무슨 技藝잇는고 對答하라 갈오티 나는
아모 技藝도 몰음 나이다 하니

여호 | 웃고 갈오티 어어 不祥하다 技藝 몰
은놈 아비 萬一 산냥리가 올진티 엇지 할
라뇨 하고 辱하더니 그새 못춤 獵狗가 오
는지라 피는 急히 나무우희 울니 안젓소나
여호는 나무에 올지 못하고 慌忙이 四面
으로 避하야 다라나다가 못춤이 개의게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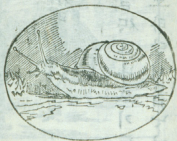
회고이다. 平七古七和轉又合。 此句 故曰 此
여러 분도 自己 일만 힘쓰고 남을 웃지 마시
오.

第二十課 달팽이라

달팽이가 논 등에 흙 쟁질을 가지고 잇스니 이
는 몸을 감추는 집이오이다.

달팽이가 있다 감나을 때 軟한 쌀 빛슬 지니.

그 中에 서간 것들의 셋테
 는 눈이 잇코 저른 것들의
 아 락에 는 입이 잇습네 다
 달 핑이 가 제 마음 되로 그
 썬을 움 치 가 도 향며 또 내
 여 는 리 기 도 향 니 이 버 러
 지 는 비 를 붓 치 고 는 릿 는 릿
 향 게 다 니 혀 또
 집 우 에 도 을 나 가 나
 향 히 는 다 니 지 못 향 는



이다. 달뿔이 논겨을이 되면 짐해들어 치운셔를 지네 읍는이다.

第二十一課 回水라

여기 回水가잇습는이다. 자보셔 오저나 무입히 물을셔라나 오기도 함며들어 가기도 함며셔도라 단니 잇습는이

다. 卽수는 물가 온 뒤 許
 多할 입히 잇스나 접
 쇄네가 더진 입히 여
 리 번도 라다 니다가
 나 종에 다 물에 빚이
 여 들 어 갖 소
 너 가 家 親 말 숨 을 드



孝
 常
 小
 學

二
 二
 一

르니 바다에 도 큰 回水 | 잇서 비가 져 나무
입 처럼 물에 벗이여 들어 간다. 할시 음 더 이
다

第二十二課

時計를 보는 法

이라 -

榮福이란 兒孩가 그兄의 계 물어 갈오 디. 至
수는 몇식 나 되얏 노 잇가.
兄이 自鳴鍾을 손가락으로 가르쳐曰 저것



榮福아 저것은 팔모鍾이오 그面에 쓴 글자
 는 빛적羅馬國에서 쓰던 數字인데 곳 I II

슬보아라하나榮福
 이는 아직 어린兒孩
 라時計볼줄을아지
 못할거늘그兄이時
 計를보는法을仔細
 히가르쳐소

III III V VI VII VIII IX X XI XII 이 것 시라 그러나
네 또 보아라 그 외에 무엇이 잇나 노
榮福이 對答 할야 같오되 그 속에 긴 바늘과
조른 바늘이 잇습나이다

兄이 같오되 저 두 바늘은 刻針과 時針이라
그 바늘이 쉬이지 아니하고 도라 다니며 그
가에 잇는 글자를 갈으처 時를 알게 하는 것
시오 또 두 바늘이 습할야 그 첫치 XII에 오면

열 두 시 나라

榮福이對曰그러면밭서 열 두 시 나라點心을

먹을때가 되었나이다하고兄과갓치食堂

으로드리갓습나이다

第二十三課 時計를보는法

榮福이食後에다시自鳴鍾압히나아가서

보더니 어어 보시오 時針은 조고마치 도라
갓스나 刻針은 大端히 먼저 도라갓소 하니
兄이 그 말을 듯고

이 時針이 XII에서 I까지 갈 사이에 刻針
은 한번 도라다녀 時針이 I을 指點하
는 때에 刻針은 못참나 XII를 指點하니 그
때를 一時라 일으는 거사라
다음에 또 刻針이 한번 도라다녀서 XII를 指

點할며 時針이 II를 指點할 則 두시오 III을
指點할면 世子가 된 거시라 같으 첫 습니다
榮福이 그러면 刻針이 XII를 指點하고 時針
이 III를 指點할 則 네시오 또 V를 指點할면
다섯시 오닛가 무릇 더니
兄이 같오디 그러하니라 그後도亦是 前과
갓치 刻針이 XII를 指點하고 時針이 VI을 指
點할면 여섯시오 VIII을 指點할면 일곱시오

Ⅷ을指點하면여덟시오Ⅸ를指點하면아
홉시오Ⅹ을指點하면열시오Ⅺ을指點하
면열한시오Ⅻ를指點하면열두시라고仔
細히.갈으.쳤더니榮福이暫時間生覺하다
가그러면열두시에는다시時針과刻針이
할데와서슴흘터이라.憵感謝하외다.이제
나는.時計보는法을.잘.비.왓.습.나.이.다.

第二十四課

職業에는 貴賤

第二十五篇

아 업는 첫사라

스름의 貧富는 大概 그 職業으로 될 것시 아
나 라 오 작 그 스름의 勤惰에 잇습는 이 다
世 上 에 는 집 산 장 소 와 担 배 장 소 들 을 천 살
商 估 라 호 고 間 或 실 여 호 는 스름 도 잇스 나
이 것 스 大 端 히 잘 못 生 覺 호 일 이 오 이 런 장
스 라 도 世 上 에 緊 호 것 시 어 늘 엇 지 천 호 다

하느뇨 그業의貴함이는 다 른精業과 조
 금도 다름이 업스니. 그런故로 스름되는者
 는 아모職業이라도 체 몸에 相當할 것슬. 가
 러서 조금도 게을나 말고 專心으로 할함이
 을스오이다.

第二十五課

가마귀가 조개

第二十四題

를 먹는 이야기

라

許多날 가라귀가 날바다가에 모이여 조개
를 바위우에 두고 일부리로 베풀와 쪼개랴



조개
가 단
단 할야
容易히
쪼킬수

업는지라 여러가마귀가다 束手無策하더
니 其中에 날가마귀고 리를속이고 무심計
較를 生覺하는듯하더니 못참네 활용할手
段을 너야습나이다

이가마귀가 조개를물고 空中에 놓하날아
올라서 조개를 그아리바위에 떨어치니 조
개 깃야지는지라 이에 그속에잇는 고기를
쁘와먹엇소이다

世。上。스。름。이。일。을。始。作。하。다。가。조。금。어。려。우。
면。스。스。로。말。하。되。나。는。到。底。히。일。을。할。수。업。
다。하。는。스。름。도。만。히。잇。스。니。이。런。가。마。귀。도。
처。음。에。조。개。를。설。수。업。슬。떡。에。할。수。업。다。하。
고。그。만。두。엇。스。면。반。다。사。맛。잇。는。고。기。를。먹。
지。못。하。얏。슬。가。보。으。이。다。

第二十六課

無識함스름이

라

넷적에。할無識 할스름이잇스니 이스름이。
처음에는樵夫 | 되얏다가도씨의무거옴
을춤지못할야 그만두고 다음에引鉅匠이
가 되얏더니 또 큰톱의 무거옴을춤지못할
야 그만두고 다음에木手가 되얏더니 자귀
의危殆함을 무섭게너져 그만두고 다음에
또草家匠이가 되얏더니 집우에올흐기를

겁나야. 그만두고 다음에. 冶匠이 가 되얏더
니. 너름의 다음을. 괴로와. 그만두고 다음에.
農夫가 되얏더니. 너름이. 추하야. 그만두고
다음에. 拔春精을 하얏더니. 힘이 든다 하야.
그만두고. 나종에는. 白丁이 되얏더니. 이거
슨. 賤生涯라. 亦是 그. 만두엇습니이다.

第二十七課 無識할스름이

卷二十

과 勤 學 小 學

슬푸다. 이 無 識 할 스름 이 여 이 제 는 홀 일 도
업 고. 또 移 業 할 기 에. 歲 月 을 虛 費 할 야. 일 을
홀 스 이 가 업 서 습 는 이 다.
그 러 흠 으 로 이 스 름 이. 至 小 은 大 端 히. 後 悔
할 야. 같 오 디. 슬 푸 다. 나 는 絶 不 惜 에 어 이 生
業 을 專 一 히 아 니 할 앓 는 노 할 며. 恨 歎 할 고.
슬 허 할 나 卽 今 은 年 老 할 야. 手 足 도 任 意 로.

홀슈업서다만 남의게 어더먹고世上을보
니니 그 苦狀은 形容홀슈업고 또 後悔만 할
들 무슴 効驗이잇스오리잇가
자여러분은 이 無識할스름의 苦狀을 논거
슬보고 홀번 定할 職業은 아모리 어려울지
라도 참고 참아 中途에 變치 말고 始終을 힘
쓰는 것시 을스오이다

第二十八課 老人이라

무릇老人갓치可憐하고 슬픈이느니 업습니
이다。前에는充實하고堅強할몸이。至수는
瘦衰하야起坐도任意로 못하며。또前에는
來頭의歲月이만흐니。아모일이라도아즉
느지안타하코。마음에미뒸더니。至수는衰
弱하야。아모일도즐거울것시업습니이다。
무릇이런스름은。절블써벗더늘게서지。그

이들이며, 孫子를 길으기에 苦心勞力을 하
스나, 그 子孫되는 者는 恆常 父祖를 恭敬하
야 힘써서, 그 늙은 父母를 慰悅하고, 뜻터온
恩惠를 감는 事이 孝道라 일으니 이다.

第二十九課

山應聲이라

一日은 龍福이란 兒孩가 조고 마할 山에 가
서, 혼조다 나며 놀더니, 그 셔는 못춤 仲春이

이. 조. 커. 널. 龍. 福
 이. 花. 爛. 春. 城. 空
 고. 萬. 化. 方. 暢
 이. 盛. 히. 피. 고.
 식. 는. 관. 관. 이.
 을. 어. 참. 경. 치.
 라. 山. 바. 다. 矣.



이 라 노 리 를 불 너 터 니 건 년 편 작 에 서 도 저
와 독 갓 치 노 리 를 부 르 는 지 라 龍 福 이 성 각
하 되 귀 가 저 를 승 너 네 이 는 가 하 야 누 귀 나
하 즈 또 누 귀 나 하 는 지 라 龍 福 이 조 못 怒 하
야 辱 을 하 앓 터 처 쓰 그 辱 소 리 갓 치 소 리 나
거 늘
龍 福 이 그 蔑 視 하 는 줄 알 고 大 端 히 忿 하 야
그 승 너 네 던 스 림 을 달 음 질 하 야 다 니 며 처

지나 마참네 그 형적을 보지 못하얏소

龍福이 卽時還家 하야 그 어머니의게 告하

第三十課 山應聲이라니

야 같오되 산속에 숨어서 남의 하느말을 승

년 너는 스름이 잇서 날다려辱하엿습니

다 對答하되 아나라 그 산

이 미그말을듯고 對答하되 아나라 그 산

應聲이란 거시니라。自家의 소리가 山에 마
조치면。제가 할던 소리와 갓치 소리가 나는
나라네게 辱하는 말이 들닌 거슨。本來네가
辱할緣故。라。萬若네가 도흔말을 할양스
면。엇지도흔말노도라오지아너리오
자。龍福아。이 일썬아니라스름이 남을對하
야。할논일도。이 山應聲과 갓하녀。네가 남의
게도흔말을 할면。남도亦是네의게도흔말

노·갑·노·니·라·하고·가·르·첫·소·이·다·

第三十一課 사슴이 물을 거

울·슴·음·이·라

사·슴·하·마·리·가·물·을·먹·으·라·하·야·시·키·에·너
려·왔·더·니·偶·然·히·제·몸·이·물·에·빗·친·것·을·보
고·머·리·부·터·다·리·서·지·熟·視·하·야·數·分·時·間
을·물·속·에·섯·다·가·흔·조·말·하·되

아. 마. 너. 썬. 은. 어. 이. 이.
 리. 도. 흔. 고. 엇. 지. 할. 야.
 이. 런. 큰. 썬. 어. 너. 머. 리.
 에. 낫. 노. 萬. 一. 너. 몸.
 의. 달. 은. 데. 도. 다. 아. 썬.
 과. 썬. 처. 커. 쓰. 면. 眞. 實.
 노. 너. 가. 가. 장. 조. 흔. 김.
 성. 이. 될. 거. 시. 요.



그러나 이 다리가 이러케 가는 거슨 춤을 푸
고 밧그러온 일이 타엇지 할면 이 다리 도 썰
파 못치 크고 아름 다 올고 할터니 그 썩맛 춤
산양군이 近處에 오논 소리가 나논 지라 크커
놀나 다라 낫소이다

그러나 사슴이 다리가 갑피야와 잘 달라 나
다가 忽然 그 썰이 가시 덤블에 걸니 여젧구
러 저 음작이지 못하니 可憐하다 저 사슴이

여이썰노 因緣하야 못참서 산양군의 게잡
힌비 되얏소이다. 사슴은 그제야 비로소 自矜하던 썰은 그 몸
에 원슈가 되고 붓그림다 날던 다리느 도로
혀 그 몸을 害치 아니하느 줄을 알앗소이다.

第三十二課 生覺호 일이라

某日 蘭姬라 하느 處女 同生 文智信

의게左揭할生覺할일을물었소
할農夫가여호를잡아들과밋穀食과긋치
가지고塲에가팔나할식가는길에할너가
잇서다만외나무다리뿐이라세物件을함
게가지고것낼수논업거늘
그農夫一할아式음기략하나먼저穀食을
음긴즉뒤에여후가들을먹을터이오또여
호를먼저음긴즉뒤에들이穀食을먹을念

慮가잇스며。또。뉘를먼저。옴기고。다음에。여
호를。옴길。논지。穀食을。옴길。논지。아모리。生
覺。하야。도。달은。것。하。아를。가。질。나。갈。스。리。에。
여。호。가。뉘。를。먹。을。가。뉘。이。穀食을。먹。을。가。念
慮。|。잇。스。니。此。時。를。當。하。야。이。農夫。는。엇。더
케。하。면。이。三件을。조。금。도。傷。치。아。니。하。고。다。
옴。길。터。인。가。生。覺。하。야。보。아。라。하。니。
智。信。이。이。을。키。잇。다。가。그。方。法。을。生。覺。하。야。

닐얏다. 흠음. 이다. 和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음리들. 또. 智 信 和 又 此 二 方 法 言 生 覺
 흠음. 시다. 三 者 言 至 者 此 漢 字 和 和 會 是 和

和 十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言 此 漢 字 和 和 漢 文 二 次 者

尋常小學卷二

終

定價十六錢

學部編輯局開刊書籍定價表

萬國地誌 三十五錢
 萬國略史上 二十五錢

朝鮮歷代史略漢文三冊 七十錢
 朝鮮歷史三冊 五十錢

國民小學讀本 二十五錢
 朝鮮略史 二十五錢

複本

朝鮮地誌 二十五錢
 小學讀本 二十五錢

風潮蒙叢錄 二十二錢
 與款撮要 十八錢

地輿略論 十五錢
 東輿地圖 十二錢

近易算術上下 八十二錢



學部編輯局

三二八

備易四則算術

四十錢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算術



復
本

